

정답과 해설

1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3~15쪽

- 1 가공 2 첨가 3 부가 4 경감 5 삭감
 6 가감 7 차감 8 절감 9 가중
 10 ① 가중 ② 가공 11 ① 부가 ② 절감
 12 ① 차감 ② 가감 ③ 삭감 13 ② 14 ②

- 1 '가공(加工)'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이라는 의미이다. 복숭아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 채굴된 광석을 수출하기 위해 처리하는 것은 '가공'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미 있는 것을 덧붙이거나 보탬.'이라는 의미의 '첨가(添加)'가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영화 산업의 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기존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덧붙였다는 내용으로 '주된 것에 덧붙임.'이라는 의미의 '부가(附加)'가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진통제가 고통을 줄인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대출 이자 부담이 줄었다는 내용으로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함.'이라는 의미의 '경감(輕減)'이 들어갈 수 있다.
- 5 '깎아서 줄임.'이라는 의미의 '삭감(削減)'이 들어갈 수 있다.
- 6 첫 번째 문장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이므로 '가감(加減) 없이'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수입과 지출을 더하거나 빼서 알맞게 맞추어 저축 액수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더하거나 빼는 일, 또는 그렇게 하여 알맞게 맞추는 일.'이라는 의미의 '가감(加減)'이 들어갈 수 있다.
- 7 첫 번째 문장은 배송료를 덜어 낸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무단 결근 일의 일당을 덜어 내고 월급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비교하여 덜어 냄.'이라는 의미의 '차감(差減)'이 들어갈 수 있다.
- 8 '아끼어 줄임.'이라는 의미의 '절감(節減)'이 들어갈 수 있다.
- 9 첫 번째 문장은 사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사회적인 혼란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으로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이라는 의미의 '가중

(加重)'이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으로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이라는 의미의 '가중(加重)'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주변 주차장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이라는 의미의 '가공(加工)'이 들어갈 수 있다.
- 11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①은 '주된 것에 덧붙임.'이라는 의미의 '부가(附加)'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생활비를 아껴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아끼어 줄임.'이라는 의미의 '절감(節減)'이 들어갈 수 있다.
- 12 ①은 사장을 위한 비용을 직원들의 월급에서 덜어 냈다는 내용으로 '비교하여 덜어 냄.'이라는 의미의 '차감(差減)'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급여 담당자로부터 받은 안내 사항이 있는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라는 의미의 '가감(加減)'이 들어갈 수 있다. ③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5만 원씩 덜어 냈다는 것은 사실상 월급을 깎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깎아서 줄임.'이라는 의미의 '삭감(削減)'이 들어갈 수 있다.
- 13 ①과 ②는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모답풀이** ▶ ①, ⑤는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③은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④는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4 ②는 '비교되어 덜려 내어지다.'를 의미하므로 ⑥ '떨어지는'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모답풀이** ▶ ①은 '양이나 수치가 늘다.', ③은 '아끼어 줄이다.', ④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 ⑤는 '나중에 더 보태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2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25~27쪽

- 1 가상 2 가령 3 가장 4 가설 5 착상
 6 이상 7 상기 8 구상 9 상정
 10 ① 가상 ② 가령 11 ① 상기 ② 착상
 12 ① 상정 ② 이상 13 ⑤ 14 ①

- 1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

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이라는 의미의 ‘가상(假想)’이 들어갈 수 있다.

2 첫 번째 문장에는 ‘가정하여 말하여.’라는 의미의 ‘가령(假令)’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예를 들어.’라는 의미의 ‘가령(假令)’이 들어갈 수 있다.

3 첫 번째 문장은 우연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친절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내용으로 ‘태도를 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의미의 ‘가장(假裝)’이 들어갈 수 있다.

4 ‘가설(假說)’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라는 의미이다.

5 첫 번째 문장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새 작품의 결말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 또는 그 생각이나 구상.’이라는 의미의 ‘착상(着想)’이 들어갈 수 있다.

6 두 문장 모두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라는 의미의 ‘이상(理想)’이 들어갈 수 있다.

7 ‘그날의 일’, ‘지난밤에 학습한 내용’과 같이 과거의 일을 생각해 낸다는 내용으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이라는 의미의 ‘상기(想起)’가 들어갈 수 있다.

8 ‘새 작품’, ‘신도시 건설’과 같이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함.’이라는 의미의 ‘구상(構想)’이 들어갈 수 있다.

9 ‘상정(想定)’은 ‘어떤 상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이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문장은 ‘회답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정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우주 전쟁이 종결된 후의 세계’를 생각하여 단정한다는 내용이다.

10 ①은 튀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 지역은 동일하고 중심 시장은 1개만 존재하는 공간을 가정하여 생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이라는 의미의 ‘가상(假想)’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뒤에 예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라는 의미의 ‘가령(假令)’이 들어갈 수 있다.

11 ①은 장-미셸 오토니엘의 ‘벽돌과 매듭’이라는 작품은 과거 스톤웰 항쟁을 생각나게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이라는 의미의 ‘상기(想起)’가 들어갈 수 있다.

(想起)’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장-미셸 오토니엘은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에서 아이디어를 잡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으로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이라는 의미의 ‘착상(着想)’이 들어갈 수 있다.

12 ①은 3503년이라는 먼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가정적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이라는 의미의 ‘상정(想定)’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라는 의미의 ‘이상(理想)’이 들어갈 수 있다.

13 ㉠과 ㉡ 모두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②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③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성의를 보이거나 정성을 기울이다.’, ④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상상해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4 ①은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 또는 그 생각이나 구상.’을 의미하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을 의미하는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②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다.’, ③은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함. 또는 그 생각.’, ④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는’, ⑤는 ‘상기하고’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을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3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37~39쪽

- | | | | | |
|-------------|-------------|-------------|------|------|
| 1 귀결 | 2 결탁 | 3 체결 | 4 구성 | 5 성패 |
| 6 기성 | 7 ① 귀결 ② 체결 | 8 ① 결성 ② 구성 | | |
| 9 ① 기성 ② 성패 | 10 ③ | 11 ③ | | |

1 첫 번째 문장은 선은 선에, 악은 악에 이른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의 모든 주장은 결국 인간성 회복을 위한 활동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어떤 결과나 결말에 이름.’이라는 의미의 ‘귀결(歸結)’이 들어갈 수 있다.

- 2 '결탁(結託)'은 '주로 나쁜 일을 꾸미려고 서로 한통속이 됨.'이라는 의미이다. 출세를 위하여 권력과 한통속이 되는 것, 반민족적 정치 세력이 외세와 한통속이 되는 것은 나쁜 일이므로 '결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 두 문장 모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므로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이라는 의미의 '체결(締結)'이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화소가 모여서 디지털 영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우수 인력을 모아서 경영진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므로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름.'이라는 의미의 '구성(構成)'이 들어갈 수 있다.
- 5 두 번째 문장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성패(成敗)'가 들어갈 수 있다.
- 6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의 '기성(既成)'이 들어갈 수 있다.
- 7 ①은 경제블록은 결국 완전 경제통합에 이른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결과나 결말에 이름.'이라는 의미의 '귀결(歸結)'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무역 협정이 맺어졌다는 내용이므로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이라는 의미의 '체결(締結)'이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므로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짜서 만들.'이라는 의미의 '결성(結成)'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A 지역의 지반이 약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므로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름.'이라는 의미의 '구성(構成)'이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젊은 세대'와 대비되는 세대를 가리키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의 '기성(既成)'이 들어갈 수 있다. '기성세대'는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를 의미한다. ②는 기성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 '세대 공감 어플리케이션'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렸 있다는 내용이므로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성패(成敗)'가 들어갈 수 있다.
- 10 ①과 ③ 모두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풀이** ▶ ①은 '틈, 시간 따위를 짜내다.', ②는 '그렇게 되게 하다.', ④는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결성하다.', ⑤는 '새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1 ③은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를 의미하므로 '규칙이나 법, 제도 따위가 정해지다.'를 의미하는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어떤 형상을 이루다.', ②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 ④는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다.', ⑤는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4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49~51쪽

- 1 공고 2 고사 3 고수 4 향유 5 고유
6 초유 7 점유 8 유기 9 ① 고유 ② 고수
10 ① 고사 ② 공고 11 ① 점유 ② 초유 12 ④
13 ②

- 1 첫 번째 문장은 체제 기반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양국의 외교 동맹이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다는 내용이므로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공고(鞏固)하다'의 어근 '공고'가 들어갈 수 있다.
- 2 두 문장 모두 제의나 권유를 굳이 사양했다는 내용이므로 '제의나 권유 따위를 굳이 사양함.'이라는 의미의 '고사(固辭)'가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그가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굳게 지켰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가 자신의 주장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내용이므로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이라는 의미의 '고수(固守)'가 들어갈 수 있다.
- 4 '누리어 가짐.'을 의미하는 '향유(享有)'가 들어갈 수 있다. '향유'는 주로 문화, 예술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 5 '고유(固有)'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 6 두 문장 모두 처음으로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있음.'이라는 의미의 '초유(初有)'가 들어갈 수 있다.
- 7 첫 번째 문장은 토지를 차지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시장의 영역을 차지했다는 내용이므로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이라는 의미의 '점유(占有)'가 들어갈 수 있다.
- 8 첫 번째 문장은 글을 이루는 요소나 성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얹혀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의미의 '유기(有機)'가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군산'과 같은 고유의 이름을 가리키므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이라는 의미의 '고유(固有)'가 들어갈 수 있다. '고유명사'는 '날날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을 의미한다. ②는 대학 측이 '군산'의 영문 표기에 계속 K를 쓰겠다는 입장을 굳게 지킨다는 내용이므로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이라는 의미의 '고수(固守)'가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A 씨가 회장직을 굳이 사양할 경우이므로 '제나 권유 따위를 굳이 사양함.'이라는 의미의 '고사(固辭)'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공고(鞏固)하다'의 어근 '공고'가 들어갈 수 있다.

- 11 ①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이라는 의미의 '점유(占有)'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중국이 군사 행동이라는 처음으로 있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처음으로 있음.'이라는 의미의 '초유(初有)'가 들어갈 수 있다.

- 12 ㉠과 ㉡ 모두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②는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여지다.', ③은 '돈이나 쌀 따위가 헐뜨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되다.', ⑤는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3 ②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게 되다.'를 의미하므로 ㉠ '취인'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 특유하다.', ③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④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⑤는 '보람이나 효과가 있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5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61~63쪽

- | | | | | |
|-------------|--------------|-------------|------|------|
| 1 간과 | 2 엄밀 | 3 밀접 | 4 경과 | 5 과잉 |
| 6 긴밀 | 7 밀도 | 8 ① 과잉 ② 경과 | | |
| 9 ① 밀접 ② 밀도 | 10 ① 엄밀 ② 간과 | 11 ① | | |
| 12 ④ | | | | |

- 1 '그 사건의 진실한 내막'과 '부작용'을 대강 보아 넘겼다는 내용이므로 '큰 관심없이 대강 보아 넘김.'이라는 의미의 '간과(看過)'가 들어갈 수 있다.

- 2 두 문장 모두 엄격하고 세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조그만 빈틈이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엄격하고 세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엄밀(嚴密)하다'의 어근 '엄밀'이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글을 읽는 과정'과 '글을 쓰는 과정'이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기업 활동'과 '경제 상황'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이라는 의미의 '밀접(密接)'이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에는 '시간이 지나감.'라는 의미의 '경과(經過)'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일이 되어 가는 과정.'라는 의미의 '경과(經過)'가 들어갈 수 있다.

- 5 첫 번째 문장에서 '과잉보호'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함.'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문장은 생산이 지나치게 많아 출고가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남음.'이라는 의미의 '과잉(過剩)'이 들어갈 수 있다.

- 6 첫 번째 문장은 두 회사가 매우 가깝게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관계국 간의 매우 가까운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긴밀(緊密)하다'의 어근 '긴밀'이 들어갈 수 있다.

- 7 첫 번째 문장은 도시에 인구가 '빽빽이 들어선 정도'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빽빽이 들어선 정도'가 균일한 액체라는 의미이므로 '빽빽이 들어선 정도.'라는 의미의 '밀도(密度)'가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인구가 도시의 수용 능력보다 많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므로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남음.'이라는 의미의 '과잉(過剩)'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화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내용이므로 '시간이 지나감.'라는 의미의 '경과(經過)'가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이라는 의미의 '밀접(密接)'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숲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식물 집단이 숲에 빽빽이 들어선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빽빽이 들어선 정도.'라는 의미의 '밀도(密度)'가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속력'과 '속도'가 엄격하고 세밀하게 따지면 다른 의미라는 내용이므로 '조그만 빈틈이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엄격하고 세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엄밀(嚴密)하다’의 어근 ‘엄밀’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대강 보아 넘긴다면 여러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큰 관심없이 대강 보아 넘김.’이라는 의미의 ‘간과(看過)’가 들어갈 수 있다.

- 11 ㉠과 ㉡ 모두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②는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 ③은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 ④는 ‘어떤 한도를 넘다.’, ⑤는 ‘어떤 시기를 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④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를 의미하므로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를 의미하는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②는 ‘정도에 지나치다.’, ③은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가 넘어가다. 또는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다.’, ⑤는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실전문제 ① 회

본문 65~70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6 ㉢ | 7 ㉡ | 8 ㉠ | 9 ㉢ | 10 ㉢ |

1 [문형 정보 활용하기] ①

㉠에는 조사 ‘을/를’과 결합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에는 조사 ‘와(과)’와 결합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들어가야 한다. ㉠에서 ‘고수하다’는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굳게 지켰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결탁하다’는 ‘마음을 결합하여 서로 의탁하다.’라는 뜻으로 ‘누구와’ 마음을 결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선생님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 그가 사장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지식 플러스+

-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요. ‘경찰이 공격에 가담하다.’라는 문장에서 ‘공격에’라는 부사어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가담했다.’라는 문장은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아요. ‘어디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하죠. 즉 ‘가담하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는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나타냄.

오답풀이

② ‘성립하다’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으로 주어진 필요하고, ‘첨가하다’는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태다.’라는 뜻으로 ‘어디에’, ‘무엇을’ 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계약이 순조롭게 성립했다.
• 인테리어 업자는 기존 비용에 추가 비용을 첨가했다.

③ ‘상기하다’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내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생각해 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함유하다’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그는 옛 친구의 얼굴을 상기했다.
• 이 음식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④ ‘엄밀하다’는 ‘조그만 빈틈이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엄격하고 세밀하다.’라는 뜻으로 주어진 필요하고, ‘결성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짜서 만든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짜서 만드는데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검토가 엄밀하다.
• 환경 단체를 결성하다.

⑤ ‘향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누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결부하다’는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키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무엇(과)’ 연관시키는데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민수는 문화생활을 향유하다.
• 그는 이론을 현실(과) 결부한다.

2 [문맥에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②

‘가설(假說)’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라는 뜻으로 (나)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이라는 뜻의 ‘가상(假想)’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가)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악의 상황으로 임시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므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이라는 뜻의 ‘가정(假定)’이 적절하다.
③ (다)는 어색한 느낌을 잊으려 쾌활한 척한다는 내용으므로 ‘태도를 거짓으로 꾸밈.’이라는 뜻의 ‘가장(假裝)’이 적절하다.
④ (라)는 소망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을 뜻하는 ‘가령(假令)’이 적절하다.
⑤ (마)는 실제 화재 상황이 아니지만 그에 대비한 훈련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을 뜻하는 ‘가상(假想)’이 적절하다.

3 [고쳐쓰기] ④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은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을 뜻하는 ‘타결’이 적절하다. ④ ‘귀결’은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룸.’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 ① ‘발전소 측이 공정을 무리하게 쪼개어 여러 하청업체

에 외주를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은 ‘정도에 지나침.’을 의미하는 ‘과도’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초과’는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을 의미한다.

② 막혀 있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므로 ㉢은 ‘셀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음.’을 의미하는 ‘밀폐’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밀접’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을 뜻한다.

③ 관리직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사고이므로 ㉣은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을 의미하는 ‘과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과잉’은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음.’을 뜻한다.

⑤ 원청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다는 내용이므로 ㉤은 ‘아끼어 줄임.’을 뜻하는 ‘절감’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차감’은 ‘비교하여 덜어 냄.’을 의미한다.

4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반의어] ①

㉠ ‘가중’은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을, ㉡ ‘경감’은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함.’을 의미하므로 ㉠과 ㉡는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에서 ‘생성’은 ‘사물이 생겨남.’을, ‘소멸’은 ‘사라져 없어짐.’을 의미하므로 이 둘도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오답풀이

- ② ‘밀도’는 ‘빽빽이 들어선 정도.’를, ‘농도’는 ‘용액 따위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 둘은 특정 의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견고’는 ‘굳고 단단함.’을, ‘간과’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특정 의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착상’은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을, ‘구상’은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함.’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특정 의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성패’는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가감’은 ‘더하거나 빼는 일.’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특정 의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꿔쓰기] ⑤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것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 즉 ‘어떤 한도나 정도가 벗어나거나 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감일’이라는 한도가 지났다고 서술한 ㉠

가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Tip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찾을 때는 그 단어가 쓰인 주변 맥락, 즉 함께 쓰인 단어들의 특징이 유사한지 비교해 보면 돼요. '유통기한'과 '마감일'처럼!

오답풀이

- ①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② '~에 지나지 아니하다(않다.).'의 구성으로 쓰여 '바로 그것밖에 달리 되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③ '어떤 일을 그냥 넘겨 버리다.'의 의미이다.
- ④ '((주로 '지나' 꼴로 쓰여)) 어떠한 상태나 정도를 넘어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6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③

〈보기〉에서 ㉠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을 뜻하는 '가공(加工)'이고, ㉡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하다.'를 뜻하는 '가공(可恐)하다'의 어근이므로 ㉠과 ㉡는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우연히 동일한 소리로 발음되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그러나 ③을 보면 ㉠은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듦.', ㉡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의 의미로, ㉠과 ㉡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다의어이다.

오답풀이

- ① ㉠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을 뜻하는 '가상(假想)'이고, ㉡는 '착하고 기특하게 여기다.'를 뜻하는 '가상(嘉尙)하다'의 어근이므로 ㉠과 ㉡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 ② ㉠은 '제의나 권유 따위를 굳이 사양함.'을 뜻하는 '고사(固辭)'이고, ㉡는 '앞에 오는 말의 내용이 불가능하여 뒤에 오는 말의 내용 역시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낸다.'를 뜻하는 '고사(姑捨)하다'의 어근이므로 ㉠과 ㉡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 ④ ㉠은 '홍분이나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짐.'을 뜻하는 '상기(上氣)'이고, ㉡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을 뜻하는 '상기(想起)'이므로 ㉠과 ㉡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 ⑤ ㉠은 '절실히 느낌.'을 뜻하는 '절감(切感)'이고, ㉡는 '아껴서 줄임.'을 뜻하는 '절감(節減)'이므로 ㉠과 ㉡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7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꿔쓰기] ②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신입생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덜어

서 가볍게 함.'을 의미하는 '경감될'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가감될'은 '더하거나 빼는 것.'을 뜻한다.
- ③ '삭감될'은 '깎아서 줄임.'을 뜻한다.
- ④ '절감될'은 '아껴서 줄임.'을 뜻한다.
- ⑤ '차감될'은 '비교하여 덜어냄.'을 뜻한다.

8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①

㉠ '고유(固有)'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이다. ㉡의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을 의미하는 단어는 '고수(固守)'이다.

- 예 • 생활한복은 우리 고유의 멋에 실용성을 더했다.
- 올해 우리 팀은 선두권 고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답풀이

②~⑤ 사전적 의미가 모두 적절하다.

9 [글의 내용 파악하기] ④

2문단에서 누리호는 300톤급의 추력을 보유했으나 당시 개발 여건상 단일 엔진 개발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여러 엔진을 묶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에서 누리호는 누리호 프로젝트 시작으로부터 12년 3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하였으므로 '누리호의 성공은 12년이 넘는 누리호 프로젝트의 결실(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또는 그런 성과.)'이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② 1문단에서 누리호에 실린 위성들은 목표했던 고도에 무사히 도착해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 즉 정밀(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함.) 분석을 마쳤고, 지금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③ 1문단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만든 수많은 연구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 국가적 지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누리호를 성공시킨 연구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을 간과(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⑤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리호 연구진들은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옮겨 국내 우수 산업체와 새로운 인재를 길러낼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누리호 연구진들이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다른 데로 옮김.)하여 인재를 육성(길러 자라게 함.)할 계획이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0 [단어의 사전적 정보 이해하기] ③

‘조성하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공원이나 택지 등의 공간 또는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므로 ‘뜻을 조성하다.’처럼 ⑥와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1」의 의미가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이므로 목적어에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와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2」의 의미가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이므로 목적어에 무엇을 할 마음을 먹은 것을 의미하는 ‘뜻, 목적, 이상, 소원’ 등의 체언이 와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3」의 의미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이므로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를 의미하는 ‘구성하고’로 바꾸어도 의미가 동일하다.
- ⑤ 「4」의 의미가 ‘예식이나 계약 따위를 진행되게 하다.’인데 ‘출산’은 ‘예식이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생이 출산을 이루다.’는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다.

6

회자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79~81쪽

- 1 무관 2 난관 3 관건 4 여부 5 증여
6 여건 7 관여 8 ① 무관 ② 난관 ③ 관여
9 ① 여부 ② 관건 10 ① 여건 ② 증여 11 ④
12 ④

- 1 ‘관계나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관(無關)하다’의 어근 ‘무관’이 들어갈 수 있다.
- 2 ‘난관(難關)’은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단계나 대목.’이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문장의 ‘장애’, 두 번째 문장의 ‘조금도 굴하지 않는’에서 ‘난관’을 떠올릴 수 있다.
- 3 ‘관건(關鍵)’은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문장은 학문이 문화의 ‘성쇠(盛衰, 성함과 쇠퇴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자율적인 시민 육성이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내용이므로 ‘관건’이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증언의 참과 거짓, 두 번째 문장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의미이므로 ‘그리함과 그리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의 ‘여부(與否)’가 들어갈 수 있다.
- 5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두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의미의 ‘증여(贈與)’가 들어갈 수 있다.
- 6 ‘여건(與件)’은 ‘주어진 조건.’이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문장의 ‘어려운’, 두 번째 문장의 ‘생산성과 물가등’이 조건에 해당한다.
- 7 ‘관여(關與)’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이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문장의 ‘이 사건’, 두 번째 문장의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이 관계하여 참여하는 ‘어떤 일’에 해당한다.
- 8 ①은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 씨가 자신은 횡령 혐의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므로 ‘관계나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관(無關)하다’의 어근 ‘무관’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고위직들이 대대적인 횡령 혐의에 연루된 회사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단계나 대목.’이라는 의미의 ‘난관(難關)’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③은 회사 내부에서는 최 씨가 횡령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이라는 의미의 ‘관여(關與)’가 들어갈 수 있다.

9 엑스레이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잘 적발하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마약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내용이므로 ①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의 '여부(與否)'가, ②는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의 '관건(關鍵)'이 들어갈 수 있다.

10 ①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만하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조건.'이라는 의미의 '여건(與件)'이 들어갈 수 있고, ②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의미의 '증여(贈與)'가 들어갈 수 있다.

11 ①과 ④ 모두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시선이나 관심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②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③은 '남에게 어떤 역할 따위를 가지게 하다.', ⑤는 '시간이나 공간 따위를 남에게 허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2 ④는 '서로 관련을 가지다.'를 의미하므로 '얹잡아 보다.'를 의미하는 ④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단계나 대목.', ②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 ③은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⑤는 '관계나 상관이 없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7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91~93쪽

1 규정	2 규격	3 규범	4 기준	5 제정
6 제약	7 견제	8 ① 규모 ② 규제		
9 ① 규정 ② 규격	10 ②	11 ⑤		

1 첫 번째 문장에는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이라는 의미의 '규정(規定)'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이라는 의미의 '규정(規定)'이 들어갈 수 있다.

2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두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라는 의미의 '규격(規格)'이 들어갈 수 있다.

3 첫 번째 문장의 '충효', 두 번째 문장의 '국제사회 일반이 관행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에서 '행동하거

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의 '규범(規範)'을 떠올릴 수 있다.

4 '기준(基準)'은 '실천하는 데 모범이 되는 표준.'이라는 의미이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표준을 세우고, '작업' 표준을 따르는 것은 '기준'의 의미이다.

5 '법률', '은행 감독 기준'을 만들어서 정한다는 내용이므로 '제도나 법률을 만들어서 정함.'이라는 의미의 '제정(制定)'이 들어갈 수 있다.

6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이라는 의미의 '제약(制約)'이 들어갈 수 있다.

7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이라는 의미의 '견제(牽制)'가 들어갈 수 있다.

8 ①은 지진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라는 의미의 '규모(規模)'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일본이 건축의 내진 설계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다는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규정.'이라는 의미의 '규제(規制)'가 들어갈 수 있다.

9 ①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여권 발급을 위한 사진의 규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을 의미하는 '규정(規定)'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여권 사진 크기의 표준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라는 의미의 '규격(規格)'이 들어갈 수 있다.

10 ①과 ② 모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 ④ '물체의 전체 면이나 부분에 대하여 힘이나 무게를 가하다.', ③은 '경기나 경선 따위에서, 상대를 제압하여 이기다.', ⑤는 '계속 머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1 ⑥는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을 의미한다. 그러나 ⑤의 문장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함.'을 의미하는 '자제'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과 ④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 ⑥와 ②는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눌러서 그치게 하다.', ③과 ⑤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다.', ④와 ④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03~105쪽

- 1 야기 2 기점 3 원형 4 기인 5 복원
6 원리 7 기원 8 ① 기점 ② 환기
9 ① 기인 ② 야기 10 ① 원리 ② 원형 ③ 기원
11 ④ 12 ④

- 1 '큰 혼란', '큰 사고'가 일으켜진다는 내용이므로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이라는 의미의 '야기(惹起)'가 들어갈 수 있다.
- 2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의 '기점(起點)'이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인 형태가 동사의 원래 모양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미술관에 본디의 것과 똑같이 만들어진 고호의 그림이 걸려 있다는 내용이므로 '본디의 꼴.'이라는 의미의 '원형(原形)'이 들어갈 수 있다.
- 4 '도시의 땅값 상승'의 원인이 '인구 증가'이고 '과로사'의 원인이 '직업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이라는 내용이므로 '어떤 것에 원인을 둬.'이라는 의미의 '기인(起因)'이 들어갈 수 있다.
- 5 '빨 공룡 화석', '일제강점기 기록영화'가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왔다는 내용이므로 '원래대로 회복함.'이라는 의미의 '복원(復原)'이 들어갈 수 있다.
- 6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의미의 '원리(原理)'가 들어갈 수 있다.
- 7 첫 번째 문장은 고려 시대부터 처음으로 생긴 풍습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진주 유등 축제가 처음으로 생긴 근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이라는 의미의 '기원(起原)'이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자신과 관련된 '땀'이 생겨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연예인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의 '기점(起點)'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추억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므로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을 의미하는 '환기(喚起)'가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기상이변'의 원인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것에 원인을 둬.'이라는 의미의 '기인(起因)'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점차 높아지는 바다의 온도가 열돔 현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므로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이라는 의미의 '야기(惹起)'가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의미의 '원리(原理)'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본디의 꼴.'이라는 의미의 '원형(原形)'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③은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이라는 의미의 '기원(起原)'이 들어갈 수 있다. '기원지'는 '사물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라는 의미이다.
- 11 ①과 ④ 모두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어떤 마음이 생겼다.', ②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 ③은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 ⑤는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④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를 의미하므로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를 의미하는 ④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 ②는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③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⑤는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9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15~117쪽

- 1 반향 2 반추 3 반증 4 대응 5 상대
6 대조 7 절대 8 ① 반향 ② 반추
9 ① 절대 ② 상대 10 ① 대조 ② 대응 11 ②
12 ⑤

- 1 그의 가수 데뷔와 장관의 지난번 발언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 큰 반응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의미의 '반향(反響)'이 들어갈 수 있다.
- 2 첫 번째 문장은 지나간 50년을 되풀이하여 생각해 본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함.'이라는 의미의 '반추(反芻)'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에는 '소나 염소 따위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이라는 의미의 '반추(反芻)'가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에는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한, 또는 그런 증거.'라는 의미의 '반증(反證)'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어떤 사실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거꾸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반증(反證)'이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국어에서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짝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이라는 의미의 '대응(對應)'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에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이라는 의미의 '대응(對應)'이 들어갈 수 있다.
- 5 첫 번째 문장에는 '서로 마주 대함. 또는 그런 대상.'이라는 의미의 '상대(相對)'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중심부 지식이 주변부 지식에 비해 견고하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대비함.'이라는 의미의 '상대(相對)'가 들어갈 수 있다.
- 6 첫 번째 문장은 이 글과 원문의 내용을 맞대어 검토한다는 내용이므로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갖고 다름을 검토함.'이라는 의미의 '대조(對照)'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하얀 얼굴과 까만 머리 카락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이라는 의미의 '대조(對照)'가 들어갈 수 있다.
- 7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이라는 의미의 '절대(絕對)'가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한 축구 지도자의 교육철학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 큰 반응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의미의 '반향(反響)'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축구 지도자가 축구 선수였을 당시 자신의 경험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며 아들에게 기본기를 강조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함.'이라는 의미의 '반추(反芻)'가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와 같이 변화하지 않는 위치이므로 '절대(絕對)적 위치'이고, ②는 관계적 위치와 같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이므로 '상대(相對)적 위치'이다.
- 10 ①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필리핀 문화에 대한 내용이므로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이라는 의미의 '대조(對照)'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이라는 의미의 '대응(對應)'이 들어갈 수 있다.
- 11 ①과 ② 모두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풀이** ▶ ①은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다.', ③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다.', ④는 '먹었던 마음을 바꾸어 달리 생각하다.', ⑤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낸다.'를 의미하므로 '기억을 되살려 내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을 나게 하다.'를 의미하는 ⑥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르게 되다.', ②는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하다.', ③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다.', ④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0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27~129쪽

- | | | | | |
|-------------|--------------|-------------|------|------|
| 1 유발 | 2 규명 | 3 촉발 | 4 발현 | 5 개발 |
| 6 조명 | 7 자명 | 8 ① 유발 ② 개발 | | |
| 9 ① 촉발 ② 폭발 | 10 ① 자명 ② 규명 | 11 ④ | | |
| 12 ④ | | | | |

- 1 '과속 운행'이 '대형 교통사고'를,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흥미'를 일어나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이라는 의미의 '유발(誘發)'이 들어갈 수 있다.
- 2 첫 번째 문장은 사고의 원인을 밝힌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밝힌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이라는 의미의 '규명(糾明)'이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고종 황제의 의문스러운 죽음이라는 일을 당하여 3·1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일을 당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이라는 의미의 '촉발(觸發)'이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민중의 애국정신이 의병 활동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숨어 있던 개인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이라는 의미의 '발현(發現)'이 들어갈 수 있다.
- 5 첫 번째 문장은 '기본적인 능력 개발'이므로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이라는 의미의 '개발(開發)'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기술 개발'이므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이라는 의미의 '개발(開發)'이 들어갈 수 있다.
- 6 첫 번째 문장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라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밝게 비추어 보이게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지식 경영의 유용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밝게 비추어 보이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봄.'이라는 의미의 '조명(照明)'이 들어갈 수 있다.

7 두 문장 모두 명백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알만큼 명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자명(自明)하다'의 어근 '자명'이 들어갈 수 있다.

8 ①은 성적 중심 평가가 학생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심을 일어나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이라는 의미의 '유발(誘發)'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과정 중심 평가가 창의성이나 다양한 측면의 능력들을 일깨워 준다는 내용이므로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이라는 의미의 '계발(啓發)'이 들어갈 수 있다.

9 ①은 소수 문화에 대한 차별은 그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의 적개심을 일어나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이라는 의미의 '촉발(觸發)'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이러한 적개심은 사회적 갈등을 일시에 세찬 기세로 나오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속에 쌓여 있던 감정 따위가 일시에 세찬 기세로 나옴.'이라는 의미의 '폭발(暴發)'이 들어갈 수 있다.

10 ①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내용이므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알만큼 명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자명(自明)하다'의 어근 '자명'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극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이라는 의미의 '규명(糾明)'이 들어갈 수 있다.

11 ①과 ④ 모두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밤』을 목적으로 하여) 자지 않고 지내다.”, ②는 '드러나게 좋아하다.', ③, ⑤는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2 ④는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주다.'를 의미하므로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를 의미하는 ④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 ②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 ③은 '어떤 사실이 자세히 따져져 바로 밝혀지다.', 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실전문제 2회

본문 131~136쪽

- | | | | | |
|-----|-----|-----|-----|------|
| 1 ⑤ | 2 ③ | 3 ② | 4 ③ | 5 ③ |
| 6 ③ | 7 ④ | 8 ⑤ | 9 ③ | 10 ⑤ |

1 [문맥상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⑤

첫 번째 문장은 대회 규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을 의미하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성당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를 의미하는 '규모'가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문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므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의미하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풀이

규격: '일정한 규정에 들어맞는 격식.' 또는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라는 의미이다.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이다.

2 [단어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③

① '야기하고'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라는 의미이다. ③의 '일으킨'은 '어떤 사태나 일을 벌이거나 터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①과 문맥상의 의미가 가장 가깝다.

Tip

많은 혼란을	야기하다
II	II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다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단어를 찾을 때는 같이 쓰인 단어를 살펴봐야 해요. '혼란'과 '물의'라는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야기하다'와 '일으키다'라는 서술어도 맥락상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오답풀이

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몸 또는 사물 따위를) 눕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고쳐쓰기] ②

중장년층이 미세 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울증이 심화되는데, 이는 중추신경계 미세 손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라는 의미의 '기인한'이 적절하다. ② '견인한'은 '끌어서 당기다.'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 ① 우울증처럼 미세 먼지가 유발하는 부작용이므로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을 의미하는 '환기'가 아니라 '세력이나 기세 따위가 성하였다 쇠하였다 함.'을 의미하는 '기복'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미세 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실외 활동을 스스로 억제하라는 의미이므로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르다.'를 의미하는 '견제하고'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다.'를 의미하는 '자제하고'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경유차는 미세 먼지의 주범이므로 특별히 규칙을 정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정에 들어맞는 격식.'을 의미하는 '규격이'가 아니라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의미하는 '규제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 먼지를 줄이려 했다는 의미이므로 '더하거나 빼다.'라는 의미의 '가감하기'가 아니라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하다.'라는 의미의 '경감하기'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③

선생님의 설명에서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세금'과 '관세'의 관계를 보면 '세금'이 의미상 '관세'를 포함하고 '관세'는 '세금'에 포함되므로 '세금'이 상위어이고 '관세'가 하위어이다. 따라서 상위어인 '세금'이 하위어인 '관세'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오답풀이

- ① '증여'는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의 의미이고 '기증'은 '선물이나 기증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의 의미이다. 선생님의 설명에서 유의 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증여'와 '기증'은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 ② 선생님의 설명에서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고 하였다. '총각'과 '아주머니'는 [남성/여성], [미혼/기혼]이라는 두 개의 의미 요소가 다르므로 반의 관계

에 있지 않다.

- ④ 선생님의 설명에서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하위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간접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를 보면 '간접세'가 의미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포함되므로 '간접세'가 상위어이고 '부가가치세'가 하위어이다. 따라서 하위어인 '부가가치세'가 상위어인 '간접세'보다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⑤ 선생님의 설명에서 상하 관계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말한다고 하였다. '구기'는 야구, 축구, 배구, 탁구 등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를 의미하므로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위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위어가 된다.

5 [문맥상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③

③ '난관(難關)'은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단계나 대목.'이라는 의미이므로 ㉠ '가장 중요한 것'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의 '관건(關鍵)'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전진(前進)하기'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② '작용(作用)한다'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④ '규정(規定)되어'는 '규칙으로 정해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⑤ '견제(牽制)하며'는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르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6 [문맥상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③

(가)는 마주 대하고 있는 선수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마주 대함. 또는 그런 대상.'을 의미하는 '상대(相對)'가 적절하다. (나)는 그는 나와 성격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을 의미하는 '대조(對照)'가 적절하다. (라)는 지도상의 각 좌표는 실제 지형의 특정 지점과 맞아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을 의미하는 '대응(對應)'이 적절하다. (마)는 좌우의, 즉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관계가 격화되어 간다는 내용이므로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을 의미하는 '대립(對立)'이 적절하다. 그러나 (다)는 귀농하지 말라는 주위의 의견을 무릅쓰고 귀농을 결심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행

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이라는 의미의 ‘반대(反對)’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가)~(마)의 빈칸에 들어갈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절(絶)’이다.

7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꿔쓰기] ④

이 글에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건설 회사는 아파트 건축을 줄이게 되고 당장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부의 아파트 시장 가격 통제’가 ‘아파트 시장 가격의 상승’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로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를 의미하는 ④ ‘유발(誘發)할’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개발(開發)할’은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다.’,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의 의미이다.
- ② ‘남발(濫發)할’은 ‘어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자꾸 함부로 하다.’의 의미이다.
- ③ ‘도발(挑發)할’은 ‘남을 집적거리어 일이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 ⑤ ‘적발(摘發)할’은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내다.’의 의미이다.

8 [문맥상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⑤

⑤ ‘계발(啓發)하고’는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주다.’라는 의미이므로 ㉔ ‘골라 뽑고’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는 ‘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다.’라는 의미를 가진 ‘선발(選拔)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양성(養成)할’은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내다.’라는 의미이므로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② ‘조성(造成)하는’은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듦.’라는 의미이므로 ㉔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해제(解除)할’은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④ ‘표명(表明)했다’는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다.’라는 의미이므로 ‘드러내 알리다.’라는 의미의 ㉔와 바꾸어 쓸 수 있다.

9 [글의 내용 파악하기] ③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당시 교회가 부정하던 지동설의 기

본 전제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 성경에 기반한 종교적 우주관을 배척하는 주장을 하는 브루노를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감옥에 가둬 고문을 가하고 결국 화형시켰다. 이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재판을 통해 브루노의 우주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브루노는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종교재판을 받았으나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브루노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② 브루노의 주장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정하던 지동설의 기본 전제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고 성경에 기반한 종교적 우주관을 배척한 것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을 부정하는 브루노의 우주관을 교회에 대한 도발로 여겼을 것이다.
- ④ 브루노는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우주가 무한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브루노가 자신의 주장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⑤ 기존의 지식 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브루노의 자세와 사상적 자유를 기리기 위해 1899년 브루노가 화형당한 로마의 캄포 데 피오리 광장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다고 했으므로 ⑤의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0 [사전 정보 활용하기] ⑤

‘그는 세상 물정에 밝다.’에서 ‘밝다’는 ㉠ ‘[…에]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의 의미이므로 ㉠의 ㉡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의 용례로 추가할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밝다’ ㉠과 ㉡는 하나의 표제어 안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밝다’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다의어이다.
- ② 달빛이 환하다는 의미이므로 ㉡의 ‘밝았다’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 ㉢의 의미이다.
- ③ ‘말귀가 어둡다’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귀’는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의 ‘어둡다’는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의 ㉣의 반의어이다.
- ④ ‘인사성과 예의’는 ‘생각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의 ‘밝다’는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라는 ㉠의 ㉣의 뜻으로 쓰였다.

11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45~147쪽

- 1 돌변 2 변수 3 이변 4 이질 5 실질
6 양질 7 변질 8 ① 변수 ② 이변
9 ① 양질 ② 변질 10 ① 실질 ② 이질 11 ⑤
12 ④

- 1 '온화하던 날씨'가 '쌀쌀한 날씨'로,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야수'로 갑자기 달라졌다는 내용이므로, '뜻밖'에 갑자기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이라는 의미의 '돌변(突變)'이 들어갈 수 있다.
- 2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하므로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이라는 의미의 '변수(變數)'가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경기에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놀랐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기상 현상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태나 괴이한 변고.'를 의미하는 '이변(異變)'이 들어갈 수 있다.
- 4 '따뜻함과 차가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성질이 다름.'이라는 의미의 '이질(異質)'이 들어갈 수 있다.
- 5 첫 번째 문장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를 의미하는 '탁상공론'과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이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실제로 있는 본바탕.'이라는 의미의 '실질(實質)'이 들어갈 수 있다.
- 6 '좋은 품질의 농산물', '좋은 품질의 서비스'라는 내용이므로, '좋은 바탕이나 품질.'이라는 의미의 '양질(良質)'이 들어갈 수 있다.
- 7 '식품의 성질이 변함', '소설의 성질이 변함.'이라는 내용이므로,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이라는 의미의 '변질(變質)'이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OPEC의 석유 생산량 증가가 유가 상승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이라는 의미의 '변수(變數)'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유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태나 괴이한 변고.'를 의미하는 '이변(異變)'이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식약청이 제약 회사로 하여금 좋은 품질의 원료를 쓰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좋은 바탕이나 품질.'이라는 의미의 '양질(良質)'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의

약품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는다는 내용이므로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이라는 의미의 '변질(變質)'이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물가 상승의 효과를 제거하고 실제적인 생산량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실제로 있는 본바탕.'이라는 의미의 '실질(實質)'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지역 경기 상황 지수가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므로 '성질이 다름.'이라는 의미의 '이질(異質)'이 들어갈 수 있다.

- 11 ⑤는 '다르게 하여 바꾸다.'라는 의미이므로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라는 의미의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은 '바뀌어 달라지다.', ②는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뀌다.', ③은 '용모가 바뀌다.', ④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하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 12 ④는 '성질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④의 문장에는 '성질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동질적'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과 ①은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다.', ㉡와 ②는 '다르게 하여 바꾸다.', ㉢와 ③은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다.', ㉣와 ⑤는 '실제로 있는 본바탕과 같거나 그에 근거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57~159쪽

- 1 분배 2 선별 3 분해 4 이분법 5 식별
6 판별 7 ① 이분법 ② 분석 8 ① 분류 ② 분해
9 ① 선별 ② 판별 10 ② 11 ⑤

- 1 두 문장 모두 갈라서 나눈다는 내용이므로 '뿔뿔이 별러 나눔.'이라는 의미의 '분배(分配)'가 들어갈 수 있다.
- 2 첫 번째 문장은 포도송이가 큰 것들을 가려서 나누어 포장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용어를 가려서 나누어 사용했다는 내용이므로 '가려서 따로 나눔.'이라는 의미의 '선별(選別)'이 들어갈 수 있다.
- 3 조립식 집과 총이나 폭탄 같은 무기는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이라는 의미의 '분해(分解)'가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근대 철학자들이 인간과 다른 존재 둘로 나누어 사고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덕무가 청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둘로 나눈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배척되는 두 개의 구

분지로 나누는 논리적 구분 방법.’이라는 의미의 ‘이분법(二分法)’이 들어갈 수 있다.

5 첫 번째 문장은 공군이 항공기의 종류를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블록을 구분하여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내용이므로, ‘분별하여 알아봄.’이라는 의미의 ‘식별(識別)’이 들어갈 수 있다.

6 첫 번째 문장은 판다의 암수를 판단하여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함.’이라는 의미의 ‘판별(判別)’이 들어갈 수 있다.

7 ①은 모든 문제를 흑과 백 둘로만 구분하는 흑백논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서로 배척되는 두 개의 구분지로 나누는 논리적 구분 방법.’이라는 의미의 ‘이분법(二分法)’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얹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이라는 의미의 ‘분석(分析)’이 들어갈 수 있다.

8 ①은 폐가전을 완전 분해가 필요한 제품, 바로 파쇄해야 할 제품 등으로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는 내용이므로 ‘종류에 따라서 가름.’이라는 의미의 ‘분류(分類)’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 때문에 폐가전을 각 부품으로 나눈다는 내용이므로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날로 나눔.’이라는 의미의 ‘분해(分解)’가 들어갈 수 있다.

9 ①은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가려서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가려서 따로 나눔.’이라는 의미의 ‘선별(選別)’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구별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함.’이라는 의미의 ‘판별(判別)’이 들어갈 수 있다.

10 ①과 ② 모두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 ③은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④는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 ⑤는 ‘몹을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1 ⑥는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인 것으로 변하다.’를 의미하는데, ⑤의 문장에는 ‘화산성 물질이 지구 내부에서 표면으로 방출되다.’를 의미하는 ‘분화(噴火)하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④와 ①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 ⑥와 ②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 ⑦과 ③은 ‘서로 배척되는 두 개의 구분지로 나누는’, ④와 ④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3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69~171쪽

- 1 산실 2 산출 3 양산 4 소산 5 도출
6 분출 7 출몰 8 ① 소산 ② 양산
9 ① 산물 ② 산출 10 ① 분출 ② 도출 11 ③
12 ③

1 첫 번째 문장은 신기술 개발을 이루어 내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을 이루어 낸 곳이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일을 꾸미거나 이루어 내는 곳. 또는 그런 바탕.’이라는 의미를 가진 ‘산실(産室)’이 들어갈 수 있다.

2 첫 번째 문장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생산하여 낸 물건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석이라는 내용이므로 ‘물건을 생산하여 내거나 인물·사상 따위를 냄.’이라는 의미의 ‘산출(產出)’이 들어갈 수 있다.

3 두 문장 모두 많이 만들어 낸다는 내용이므로 ‘많이 만들어 냄.’이라는 의미의 ‘양산(量產)’이 들어갈 수 있다.

4 첫 번째 문장은 예술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재능에 의한 결과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풍속이 공동체의 문화에 의한 역사적 결과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행위나 상황 따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의 ‘소산(所產)’이 들어갈 수 있다.

5 ‘도출(導出)’은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을 의미한다. 두 문장 모두 이론을 이끌어 내거나 쟁점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므로 ‘도출’이 들어갈 수 있다.

6 첫 번째 문장은 용암이 솟구쳐서 뿜어져 나왔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터져 나온다는 내용이므로,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이 솟구쳐서 뿜어져 나옴.’ 또는 ‘요구나 욕구 따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옴.’을 의미하는 ‘분출(噴出)’이 들어갈 수 있다.

7 첫 번째 문장은 해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토끼나 노루, 오소리 따위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을 의미하는 ‘출몰(出沒)’이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개인의 재능, 노력, 의지는 환경에 의한 결과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행위나 상황 따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소산(所産)'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복지 국가가 남에게 의존만 하는 국민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많이 만들어 냄.'이라는 의미의 '양산(量産)'이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혁신적인 케이블 배터리 기술이 자율과 협업을 강조하는 회사의 창의적 연구 문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산물(産物)'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협업을 통한 연구로 생산된 물건이나 기술이라는 의미이므로 '물건을 생산하여 내거나 인물·사상 따위를 냄.'을 의미하는 '산출(産出)'이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용암이 솟구쳐서 뿜어져 나왔다는 의미이므로,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이 솟구쳐서 뿜어져 나옴.'을 의미하는 '분출(噴出)'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므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을 의미하는 '도출(導出)'이 들어갈 수 있다.
- 11 ㉠과 ㉢ 모두 '일정한 직장이나 일터에 다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말이나 사실, 소문 따위가 널리 알려지다.', ②는 '값이나 무게 따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다.', ④는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벗어나거나 집이나 직장 따위를 떠나다.', ⑤는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③은 '생산이 줄다. 또는 생산을 줄이다.'를 의미하므로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다.', ②는 '겉으로 드러내다.', ④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다.', ⑤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4 회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81~183쪽

1 상관	2 조응	3 양상	4 상충	5 응당
6 위상	7 상응	8 부응	9 ① 양상 ② 위상	
10 ① 상응 ② 상충	11 ① 응당 ② 부응	12 ④		
13 ③				

- 1 첫 번째 문장은 운동 부족과 비만은 서로 관련을 갖는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계절과 관련을 갖지 않는 업종이라는 내용이므로 '서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상관(相關)'이 들어갈 수 있다.
- 2 첫 번째 문장은 현실과 일치하게 대응하는 이론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본주의의 급성장에 일치하게 대응하여 변화했다는 내용이므로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이라는 의미의 '조응(照應)'이 들어갈 수 있다.
- 3 두 문장 모두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양상(樣相)'이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국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했다는 내용이므로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을 의미하는 '상충(相衝)'이 들어갈 수 있다.
- 5 첫 번째 문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당연히 있는 일이라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라는 의미의 부사 '응당(應當)'이 들어갈 수 있다.
- 6 첫 번째 문장은 국제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가지는 우리나라의 위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17세기 중국에서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서양 과학의 위치라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하는 '위상(位相)'이 들어갈 수 있다.
- 7 첫 번째 문장은 물건의 가치와 어울릴 만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공동체의 위험에 어울리는 보험료라는 내용이므로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이라는 의미의 '상응(相應)'이 들어갈 수 있다.
- 8 두 문장 모두 취향이나 수요에 쫓아서 응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쫓아서 응함.'이라는 의미의 '부응(副應)'이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양상(樣相)'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국제적 위치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하는 '위상(位相)'이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장병들의 헌신적 희생에 어울리는 복지 수혜라는 내용이므로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이라는 의미의 '상응(相應)'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각 군과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했다는 내용이므로 '맞지 아

니하고 서로 어긋남.’를 의미하는 ‘상충(相衝)’이 들어갈 수 있다.

- 11 ①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라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라는 의미의 부사 ‘응당(應當)’이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사회적 요구에 좇아서 응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함.’이라는 의미의 ‘부응(副應)’이 들어갈 수 있다.

- 12 ③과 ④ 모두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②는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을 하다.’, ③은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⑤는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3 ③은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하다.’를 의미하므로 ‘어떤 일이 생기다.’를 의미하는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은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 ②는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 ④는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다.’, ⑤는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다.’를 의미하므로 각각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5 **한 차** 확인 문제로 VQ 다지기 본문 193~195쪽

- 1 수혜 2 수동 3 동태 4 감수 5 수모
6 동요 7 선동 8 ① 수혜 ② 선동
9 ① 감수 ② 수동 ③ 수모 10 ① 동요 ② 동태
11 ④ 12 ⑤

- 1 장학금이라는 혜택, 무료 치료라는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므로 ‘은혜를 입음, 또는 그 혜택을 받음.’이라는 의미의 ‘수혜(受惠)’가 들어갈 수 있다.
- 2 두 문장 모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동(受動)’이 들어갈 수 있다.
- 3 첫 번째 문장은 그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의 ‘동태(動態)’가 들어갈 수 있다.
- 4 첫 번째 문장은 자전거를 배울 때는 여러 번 넘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기업들이 가격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므로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따위

를 달게 받아들임.’이라는 의미의 ‘감수(甘受)’가 들어갈 수 있다.

- 5 두 문장 모두 모욕을 받았다는 내용이므로 ‘모욕을 받음.’이라는 의미의 ‘수모(受侮)’가 들어갈 수 있다.

- 6 첫 번째 문장에서 ‘침착한 태도’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마음이나 상황 따위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을 의미하는 ‘동요(動搖)’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신분제가 흔들렸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체제나 상황 따위가 혼란스럽고 술렁임.’을 의미하는 ‘동요(動搖)’가 들어갈 수 있다.

- 7 첫 번째 문장은 독재자가 웅변으로 대중을 부추겼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자기 기준이 확고하지 않으면 남의 말에 부추김을 당하기 쉽다는 내용이므로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라는 의미의 ‘선동(煽動)’이 들어갈 수 있다.

- 8 ①은 새로 제정된 법안에 따라 혜택을 입는 업종이라는 내용이므로 ‘은혜를 입음, 또는 그 혜택을 받음.’이라는 의미의 ‘수혜(受惠)’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부추긴다는 내용이므로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라는 의미의 ‘선동(煽動)’이 들어갈 수 있다.

- 9 ①은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므로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따위를 달게 받아들임.’이라는 의미의 ‘감수(甘受)’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임.’이라는 의미의 ‘수동(受動)’이 들어갈 수 있다. ③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모욕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모욕을 받음.’이라는 의미의 ‘수모(受侮)’가 들어갈 수 있다.

- 10 ①은 A 후보자의 비리 의혹에 유권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마음이나 상황 따위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을 의미하는 ‘동요(動搖)’가 들어갈 수 있다. ②는 다른 후보자들이 이런 유권자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들을 공략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의 ‘동태(動態)’가 들어갈 수 있다.

- 11 ①과 ④ 모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은 ‘색깔이나 모양이 어떤 것에 어울리다.’, ②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 ③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⑤는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를 의미하는데 ㉡의

문장에는 ‘범법자, 포로, 난민, 관객, 물품 따위를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아 넣다.’를 의미하는 ‘수용(收容)하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과 ㉡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과 ㉣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와 ㉥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하다.’, ㉦와 ㉧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전문제 3 회

본문 197~202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6 ㉣ | 7 ㉥ | 8 ㉣ | 9 ㉣ | 10 ㉥ |

1 [사전 정보 활용하기] ①

㉠은 ‘물질만능주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물질만능주의’는 ‘현대 문명’에 의하여 생겨난 현상이므로 ㉠은 ‘산물’의 「2」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소산(所産)’은 ‘어떤 행위나 상황 따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 바꾸어 쓸 수 있다.

㉢ ㉣은 ‘전통문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전통문화’는 ‘선조들의 지혜’에 의하여 생겨난 사물이나 현상이므로 ㉣은 ‘산물’의 「2」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은 ‘감굴’을 가리킨다. ‘감굴’은 ‘일정한 곳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이므로 ㉥은 ‘산물’의 「1」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은 ‘환경오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환경오염’은 ‘공업화’에 의하여 생겨난 현상이므로 ㉧은 ‘산물’의 「2」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 [문맥상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①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강폭이 급격히 넓어져 유속이 ‘갑자기 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다.’를 의미하는 ① ‘급변(急變)하게’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변동(變動)하게’는 ‘바뀌어 달라지다.’라는 의미로, ‘갑자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변성(變性)하게’는 ‘성질이 변하다.’라는 의미로, ‘갑자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변환(變換)하게’는 ‘달라져서 바뀐다.’라는 의미로, ‘갑자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불변(不變)하게’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다.

3 [문형 정보 활용하기] ②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라는 뜻으로 ‘어디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지급하다’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다.’라는 뜻으로 ‘어디에’, ‘무엇을’ 내주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에는 조사 ‘에’와 결합하는 서술어가, ㉡에

는 조사 '에/에게', '을/를' 모두와 결합하는 서술어가 들어야 한다. ②에서 '부응하다'는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하다.'라는 뜻으로 '무엇에' 좇아서 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분배하다'는 '몫몫이 별려 나누다.'라는 뜻으로 '어디에', '무엇을' 나누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예 •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다.
• 보급품을 각 집에 분배하였다.

오답풀이

① '동원하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하다.'라는 뜻으로 '어디에', '무엇을' 모으거나 집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선동하다'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누구를' 부추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재난 지역에서 모든 인력을 복구에 동원하였다.
• 그는 대중을 선동했다.

③ '분리하다'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무엇과' 또는 '무엇을', '무엇으로' 또는 '무엇에서', '무엇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노출하다'는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재활용 쓰레기에서 종이류를 분리했다.
• 비밀을 노출하다.

④ '유출하다'는 '밖으로 흘러 내보내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무엇에' 또는 '무엇을', '무엇으로' 흘러 내보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도산하다'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다.'라는 뜻으로 주어만 필요하다.

- 예 • 산업 쓰레기를 강에 유출하였다.
•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 도산했다.

⑤ '차별하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양산하다'는 '많이 만들어 내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예 •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다.
• 그 공장은 한국에 수천 대의 스마트폰을 양산한다.

4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기] ①

부정합은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 난정합과 같은 종류

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은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라는 의미의 '분류(分類)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분리(分離)할'은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분배(分配)할'은 '몫몫이 별려 나누다.'라는 의미이다.
④ '분석(分析)할'은 '엮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다.'라는 의미이다.
⑤ '분해(分解)할'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누다.'라는 의미이다.

5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반의 관계] ②

㉡ '흡수'는 '빨아서 거두어들임.'을, ㉠ '방출'은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을 의미하므로 ㉡와 ㉠은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에서 '변성'은 '성질이 변환.'을, '변환'은 '달라져서 바뀜.'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오답풀이

① '동질'은 '성질이 같음.'을, '이질'은 '성질이 다름.'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반의 관계에 있다.
③ '상응'은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을, '상충'은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반의 관계에 있다.
④ '송신'은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신이나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의 신호를 보냄.'을, '수신'은 '전신이나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의 신호를 받음.'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반의 관계에 있다.
⑤ '수동'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임.'을, '능동'은 '스스로 내켜서 움직이거나 작용함.'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반의 관계에 있다.

6 [문맥상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④

(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구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함.'을 뜻하는 '판별(判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 원고 심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별(個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다): 증권사가 여러 주식 종목 중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식 종목을 가려서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가려서 따로 나뉘.'이라는 의미의 '선별(選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라): 회사에서 업무 성과에 따라 차이를 두어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등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하는 ‘차별(差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7 [고쳐쓰기] ⑤

㉔은 ‘윈드 캐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인류 지혜’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산물(産物)’이 적절하다. ‘생산(生産)’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윈드 캐처’는 사막 기후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 건축물이라는 내용이므로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를 의미하는 ‘구별(區別)되는’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선별(選別)되는’은 ‘가려져서 따로 나누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② ‘윈드 캐처’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살기 힘든 환경에 사람이 맞추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므로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다.’를 의미하는 ‘적응(適應)하여’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㉔ ‘조응(照應)하여’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공기의 순환이 집 내부를 시원하게 만들어 뜨거운 사막 환경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므로 ‘좋은 바탕이나 품질.’을 의미하는 ‘양질(良質)’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㉔ ‘이질(異質)’은 ‘성질이 다름.’이라는 의미이다.

④ ‘윈드 캐처’는 뜨거운 사막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류가 스스로 자연 원리를 활용해 삶에 적용한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능동적(能動的)’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㉔ ‘수동적(受動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8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④

④ ‘이변(異變)’의 사전적 의미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괴이한 변고.’이다. ④ ‘다른 성질.’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질(異質)’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사전적 의미가 모두 적절하다.

9 [글 내용 파악하기] ④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공기에 의한 부패를 막기 위해 시신을 관에 넣어 봉하거나 깊은 곳에 묻었다고 하였으

므로 미라로 만든 시신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부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의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미라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미라를 통해 사후 세계에서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하였으므로 ‘미라는 사후 세계를 믿었던 문화의 산물이다.’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1문단에서 이집트의 경우, 전문적인 미라 제작사 및 방부 처리사가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전문 인력이 동원되었다.’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2문단에서 ‘소다석’은 부패균이 증식할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서, ‘송진’은 균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였으므로 ‘소다석과 송진은 시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⑤ 1문단에서 파라오 투탕카멘의 미라는 발굴 당시 보존 상태가 뛰어나 손쉽게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보존 상태가 좋은 미라는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손쉽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0 [단어의 의미 관계 : 동음이의어] ⑤

㉔와 ⑤의 ‘분석(分析)’ 모두 ‘엮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 ‘산출(算出)’은 ‘계산하여 냄.’의 의미이고, ①의 ‘산출(産出)’은 ‘물건을 생산하여 내거나 인물, 사상 따위를 냄.’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② ㉔ ‘상호(相互)’는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의 의미이고, ②의 ‘상호(商號)’는 ‘상인이 영업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쓰는 칭호.’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③ ㉔ ‘동기(動機)’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의 의미이고, ③의 ‘동기(同期)’는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교육이나 강습을 함께 받은 사람.’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④ ㉔ ‘수동(受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임.’의 의미이고, ④의 ‘수동(手動)’은 ‘다른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손의 힘만으로 움직임. 또는 손의 힘만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